

#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 306호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홍보실  
주소 110-793 서울시 중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대표전화 1577-7755



행복한 소통의 시작, 현대건설 이야기



## 대자연의 숨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인도네시아 두마이 정유공장 (1982-1984)



Photo News

발리, 롬복 등 세계적 휴양지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에 현대건설이 진출한 것은 1973년이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속도로인 자고라위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바탐공항, 발리공항 등 교통 인프라와 호텔, 레지던스 같은 숙박시설로 관광산업 기틀 마련에 일조한 현대건설은 이후 발전소, 항만, 정유공장 등 산업 기반시설까지 담당하며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힘을 보탤다. 현재는 수마트라섬 북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소인 사룰라 발전소 외에도 수력발전소, 송전선, 아파트 등 총 6개의 공사를 진행해, 환태평양의 아름다운 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Bringing nature to life

Hyundai E&C entered the Indonesian construction market in 1973 which is internationally well known for its vacation destinations such as Bali and Lombok. Starting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Jagorawi Toll Road, Indonesia's first toll road, the compan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untry's tourism industry by building transport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Hang Nadim International Airport and the Ngurah Rai International Airport and accommodations such as hotels and residence hotels. Later, the builder embarked on constructing industrial infrastructure including power plants, harbors and refineries, contributing to the Indonesian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 Sarulla geothermal power plant, the world's largest geothermal power plant located in North Sumatra province, Hyundai E&C is revitalizing the beautiful island in the Pacific Rim by working on six construction projects to build hydroelectric power plants, power lines and apartment complexes.



1 자고라위 고속도로(1974-1979) 2 시비봉 시멘트공장(1976-1978) 3 페이톤 화력발전소(1991-1994) 4 바탐 공항(1989-1996) 5 사룰라 지열발전소(2014-)

## 印尼 발전시장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다

현대건설, 인도네시아 짜레본 화력발전소II 수주

현대건설이 대규모 발전소를 연이어 시공하며 인도네시아의 극심한 전력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전력청이 발주한 짜레본(Cirebon) 화력발전소II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해안도시 짜레본에 1000MW급 \*USC(초초임계압) 발전소 1기와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변전소를 확장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에 완공된 660MW급 발전소의 후속 공사다.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현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EPC(설계·구매·시공) 분야를 담당한다.

현재 현대건설은 수마트라섬 따쟁웅(Takengon) 지역에 88MW 규모의 푸상안(Peusangan) 수력발전소 공사와 함께 수마트라섬 사룰라(Sarulla) 지역에 330MW 규모의 사룰라 지열발전소를 시공 중으로, 이번 짜레본 발전소 수주로 인도네시아의 주요 발전소 공사를 분야별로 섭렵하게 됐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열발전소에 이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있는 USC 발전소를 연이어



수주해, 전력·인프라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해외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대의 향후 발주 예정인 인프라 확충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 확장의 첫 단추를 꿰는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시공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1973년 자고라위 고속도로

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래 발전·가스·항만·공항 등 총 20여 건, 20억 달러에 이르는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USC(Ultra Super Critical·초초임계압)=고효율, 발전설비 소형화 등의 장점을 지닌 차세대 발전기술. 물이 증기로 변하는 압력인 임계압(225.65kg/cm<sup>2</sup>, 374도) 이상의 증기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초임계압 발전소라 하며, 증기압력 246kg/cm<sup>2</sup> 이상인 증기 온도가 593도 이상의 발전소를 초초임계압 발전소라 한다.

## Hyundai E&C awarded deal for the Cirebon thermal power plant II

Hyundai E&C is taking the lead in solving the extreme shortage of electricity in Indonesia by embarking on a series of construction projects to build large-scale power plants.

Korea's primary builder has received an order to build the Cirebon thermal power plant II in Indonesia from PT. PLN, the government-owned corporation with a monopoly on electricity distribution, on November 20. The project involves the construction of a 1,000 MW ultra-supercritical (USC) power plant in Cirebon, about 200 km east of Jakarta, the capital of the country.

The builder alread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a 660 MW thermal power plant in the same area in 2012. For the Cirebon thermal power plant II project, Hyundai E&C will be responsible for EPC activities in consortium with Hyundai Engineering and a local company.

Hyundai E&C is building the Peusangan hydroelectric power plant with a capacity of 88 MW in Takengon, Sumatra, and the Sarulla geothermal power plant with a capacity of 330 MW in Sarulla. Notably, the outfit won the order to construct a power plant using the geothermal energy in the spotlight as a new renewable energy and then obtained the deal to build a USC power plant which advanced countries are posing stiff competition to commercialize.

All these served as a good opportunity that the excellent construction capability of Hyundai E&C in the areas of electricity and infrastructure was well received in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 NEWS

- 힐스테이트 연말연시 '분양 혼풍' 이어간다
- 품질·환경·에너지경영시스템 심사 완료, 재인증 획득
-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 그룹사 소식

### 정주영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열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고 아산(峨山) 정주영 명예회장의 생애와 업적 등을 기리는 각종 기념행사가 18일부터 24일까지 잇따라 열렸다. 정 명예회장의 탄생일인 11월 25일을 앞두고 18일 기념음악회를 시작으로 기념 학술 심포지엄(23일)과 기념 사진전(23~24일), 기념식(24일) 등이 개최됐다.

아산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지치지 않는 새로운 도전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던 정 명예회장의 영웅적 삶을 되돌아본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클럽하우스,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클럽하우스'가 5일 열린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준공건축물 민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 건축상으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클럽하우스'는 지난 4월 세계적인 건축웹진 '아키타이저(Architizer)'가 주최한 '2015 A Award'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영광을 안게 됐다.



### 현대건설, 그룹사 축구대회 우승

우리 회사가 '제14회 현대차그룹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0일 고려대 송추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우리 회사는 현대파워텍을 상대로 2대 1의 승리를 거뒀다. 현대차그룹 14개사,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에 참여한 우리 회사 직원은 "그룹사 간의 큰 축제의 축구대회에서 우승까지 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스포츠클럽을 통해 그룹사 임직원 간 화합과 우의를 다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현장·부서 소식

### 연구개발본부, 노르웨이 과기대(NTNU)와 MOU 체결

연구개발본부가 10일 노르웨이 과기기술대학교(NTNU·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연구개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노르웨이 과기기술대학교는 '터널 기계화 굴착 공법(TBM·Tunnel Boring Machine)'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개발본부는 이번 MOU 협정으로 노르웨이 과기기술대학교가 보유한 암반 분야 TBM 공법 기술을 이전받고, 토사지반 TBM 공법에 대한 연구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 힐스테이트 연말연시 '분양 혼풍' 이어간다

## 경기도 일대 5개 단지 견본주택 개관

우리 회사가 11~12월 경기권역에서만 5개 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연말연시 분양시장을 공략한다.

우리 회사는 오는 27일 '힐스테이트 킨텍스' '힐스테이트 언정' '힐스테이트 평택 2차' '힐스테이트 에코미사' 등 4개 단지의 견본주택을 동시에 선보인다. 고양시 킨텍스 지원활성화단지 내 C1-1블록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킨텍스'는 지하철 3호선 주엽역, 자유로, 제2 자유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반경 1km 이내에 일산호수공원, 현대백화점 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우리 회사가 운영진도시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언정'은 지하 1층~지상 29층 25개 동, 총 2998세

대인 대규모 단지로, 교육특화 설계인 창의력벽지를 적용해 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평택시 세교지구 2-1블록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힐스테이트 평택 2차'는 최근 완공 행렬을 보이고 있는 소형 물량이 풍부한 데다 틈새면적을 극대화한 설계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우리 회사는 강남배후주거지로 손꼽히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중심상업시설용지 14블록에 '힐스테이트 에코미사' 오피스텔도 분양한다. 전체 평형이 복층 구조로 지어져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다음 달 4일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단지명	M/H 오픈	위치	규모	연락처
힐스테이트 킨텍스	11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지원활성화단지 내 C1-1블록	B4층~지상 49층 총 1054세대	031-903-1001
힐스테이트 언정	11월 27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A24 블록	B1층~지상 29층 총 2998세대	1899-2919
힐스테이트 평택2차	11월 27일	경기 평택시 세교지구 2-1블록	B2층~지상 26층 총 1443세대	1661-0039
힐스테이트 에코미사	11월 27일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중심상업시설용지 14블록	B7층~지상 20층 총 650실	02-431-1815
힐스테이트 중앙	12월 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2	B2층~지상 37층 총 1152세대	031-487-9677

중앙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힐스테이트 중앙'을 선보인다. 이 단지는 중앙단지설유 지원, 중앙초, 중앙중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 회사 분양 담당자는 "지난 18일

진행된 '송파 헬리오시티'의 1순위 청약에서 전 주택형 마감을 기록한 기세를 몰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단지들의 분양 혼풍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Five model houses of Hillstate open in the Gyeonggi-do province

Our company targets the year-end housing market by opening model houses for five apartment complexes in the Gyeonggi-do province alone during November and December.

Our company reveals new model homes for four apartment com-

plexes including Hillstate Kintex, Hillstate Unjeong, Hillstate Pyeongtaek II and Hillstate Eco Misa on November 27. Hillstate Kintex has an easy access to Juyeop Station on the Seoul Subway line 3, the Jayuro Highway and the second Jayuro. Located in Unjeong New

Town, Hillstate Unjeong is a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which applied specially designed wallpapers to boost creativity. Hillstate Pyeongtaek II is expected to be well received from consumers with its design which fills up all possible 'dead spaces'.

Our company is set to presell studio apartments of Hillstate Eco Misa located in the Misa district, Hanamsi, Gyeonggi-do, well known as a suburb of the southern part of Seoul. In addition, Hillstate Jungang will hit the market in Ansan-si, Gyeonggi-do, on December 4.

## 품질·환경·에너지경영시스템 심사 완료, 재인증 획득

우리 회사가 로이드인증원(LRQA Korea)으로부터 안전·환경·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6~19일 국내외 16개 현장을 대상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KSI 7001(녹색경영시스템) 사후 관리 심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의 14개 현장에 대한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재인증도 승인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우리 회사는 경영시스템의 운영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실질적인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



지난 20일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과 로이드인증원 이상근 사장 및 인증 심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 종결회의를 가졌다.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PRM사업부장 최진엽 상무보는 "이번 경영시스템 인증심사는 지난 9월 ISO 9001과 ISO 14001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인증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였다"며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녹색경영 리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우리 회사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이 지난 17일 '2015 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 시상식에서 해외건설 부문 종합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은 건설산업 각 분야에 걸쳐 최고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은 우리 회사의 모든 기



술과 경험을 총망라한 현장으로, 열악한 공사 여건 속에서도 전 세계에

한국 건설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수도인 쿠웨이트시 티에서 쿠웨이트만을 횡단해 수비아 신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36.14km 교량을 건설하는 것으로, 1984년 리비아 대수로 건설공사 이후 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해외 토목공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PHOTO NEWS

### 황연주 선수, 공격득점 첫 3500점 달성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배구단의 황연주 선수가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프로배구 V리그 KGC전에서 인상공사를 맞아 프로배구 최초로 통산 공격득점 3500점을 달성했다. 지난 시즌에도 여자부 최초로 블로킹 포함 4000득점을 돌파한 황 선수는 올 시즌 들어 더욱 노련해진 공격력으로 우리 회사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다.



### 한국콜센터 품질지수 아파트 부문 1위 수상

우리 회사가 지난 19일 '2015 한국콜센터 품질지수(KS-CQI)' 조사에서 아파트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이 품질지수는 기업·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콜센터의 서비스 품질을 국내 실정에 맞게 측정하고자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평가 모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38개 업종, 137개 기업과 24개 공공기관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리 회사는 2007년에 건설업계 최초로 '고객센터 대표전화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재, 본사 CS센터와 전국 5개 지역센터에서 총 13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 소외계층 대상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펼쳐

우리 회사가 19일 종로구 창신동 일대 소외계층의 월동 준비를 도왔다. 우리 회사 직원 15명과 대학생 봉사자 12명은 지역 저소득층 23세대를 방문해 문풍지 붙이기, 창틀 비닐 씌우기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의 지원 금액은 지난해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을 전액으로 조성됐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뜻깊은 일을 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 ISSUE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의 최신 뉴스를 (사보신문)에 연재합니다. 경제·건설·문화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뉴스를 통해 생생한 비즈니스 이슈 및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자체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 Kim's underdogs turn dream into reality

### National baseball team overcomes all odds to be Premier 12 champs

Nov 23

When Kim In-sik took the job of managing Korea's national baseball team for the Premier 12 tournament, he knew the team would have a difficult time and could only dream they would actually become champions.

For Kim, who previously led Korea in two World Baseball Classics (2006, 2009), the Premier 12 was a headache from the start because he had the problem of forming a 28-man squad with a dearth of quality pitchers who were out due to various injuries or dropped from the squad due to illegal gambling charges.

But the worries evaporated and his dream became a reality on Saturday when his team, ranked eighth in the world, beat the world No.2 United States 8-0 in the final.

The team had rough start - losing 5-0 to Japan in the opener on Nov. 8 - and went through various problems on-and-off the field.

Even in the final game against the U.S. at the Tokyo Dome they were put in an uncomfortable position as



an American was third base umpire. In the semi-final against Japan on Thursday, the linesman was Japanese.

Korea started the rally with lead-off Jeong Keun-woo, who hit a single in the first inning and later stole second. He later scored the games' first

run with a double by Lee Yong-kyu to right-center.

In the top of the third, Lee Yong-kyu drew a walk, and Kim Hyun-soo sent a double to deep right-center for Korea to make the score 2-0 and pulled U.S. starter Zack Segovia from

the mound.

In the fourth, Kim Hyun-soo hit another double from American relief Brooks Pounders when the bases were loaded to double Korea's lead to 4-0.

With two men still on board, Park Byung-ho blasted a home run to left field to give Korea a 7-0 lead. Korea scored their final run in the top of the ninth when Jeong Keun-woo drew a bases-loaded walk off Casey Coleman.

It was also a sweet revenge for Koreans who lost 3-2 in the tournament's qualifying round on Nov. 14.

"Since the United States was strong in the qualifying round, we had to be more focused," manager Kim said. "The dramatic win over Japan in the semi-finals boosted the team atmosphere in the final as well."

Players on Saturday didn't celebrate loudly or wave the national flag as they wanted to show respect to their opponents. "This is Japan and we don't want to make controversy and provoke Japan which will be still upset about its loss," said team captain Jeong.

## 김 감독의 약체 팀, 꿈을 현실로 만들다

### 야구대표팀 약조건 속에서도 프리미어 12 챔피언 등극

김인식 감독이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의 감독을 맡았을 때 김 감독은 한국 대표팀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며 우승은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 감독에게 프리미어 12는 시작부터 골칫거리였다. 부상과 불법 도박 혐의로 실력 있는 투수들이 최종 엔트리 28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을 모두 날리고 지난 11월 21일 세계 8위의 대표팀이 세계 2위 미국 팀을 결승전에서 8대 0으로 완파하면서 김 감독의 꿈은 현실이 됐다.

한국 대표팀의 시작은 녹록지 않았다. 11월 8일 개막전에서 일본에 5대 0으로 패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도쿄돔에서 있었던 미국과의 결승전에서는 3루에 미국인 심판이 배정되었고 11월 19일 일본을 상대로 한 4강전에서는 일본 심판이 나섰다.

결승전에서 한국은 선두타자 정근우가 1회 안타를 치고 진루하며 경기를 시작해 2루로 도루를 시도했다. 이 용규가 우중간 2루타를 뽑아내면서 2루에 나가 있던 정근우가 홈을 밟았다. 3회 이용규의 볼넷에 이어 김현수가 우중간 2루타로 한국이 2대 0으로 리드

하게 되면서 잭 세고비아를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4회 김현수는 만루 상황에서 구원투수 브룩스 파운더스를 상대로 다시 2타점 적시타로 4대 0으로 만들었다.

계속된 2, 3루 기회에서 박병호가 좌월 홈런을 날리면서 한국팀은 7대 0으로 앞서게 되었다. 9회 정근우가 케시 콜맨을 상대로 밀어내기 볼넷으로 마지막 득점 상황을 만들었다.

11월 14일 토너먼트 예선경기에서 미국에 3대 2로 패한 한국팀에는 달콤한 복수전이였다.

김인식 감독은 "미국은 예선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팀이

좀 더 집중해야 했다"며 "준결승에서 일본을 상대로 거둔 드라마 같은 승리가 결승전에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한국 선수들은 상대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큰 소리로 축하하거나 국기를 흔들지 않았다. 주장 정근우는 "이곳은 일본이고 패전으로 기분이 좋지 않을 일본을 굳이 자극해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 Key expressions

- squad: 선수단
- evaporate: 증발하다, (차츰) 사라지다
- blast: 폭발시키다, 후려치다

## Gov't vows 3% growth in 2016

Nov 21

The government rolled out another rosy outlook for growth next year, saying Korea will be able to reach 3 percent growth next year with a stronger domestic economy.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and Finance Minister Choi Kyung-hwan said big breakthroughs in the global economy can't be expected next year, but 3 percent growth is possible through stimulus of the domestic economy during a closed-door roundtable with heads of 11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in central Seoul on Friday.

"I think Korea will be more than capable of fulfilling 3 percent growth in 2016 if we continue the domestic

economy-oriented recovery momentum by active policy initiatives like the supplementary budget," Choi said, mentioning that Korea's third-quarter gross domestic product hit a five-year high in terms of quarter-to-quarter growth. Domestic consumption recovered to a level before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and housing transactions are also on rise, he said.

Choi acknowledged that "uncertainties in the global economy are worrisome, including G-2 risks [the U.S. Fed's raising of interest rates and the Chinese economy's slowdown], a slowdown of emerging economies after the fall in raw materials prices, and the threat of terrorism."



He vowed that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expansionary and deregulatory policies to open up business opportunities for the private sector.

Choi and the research institute

heads agreed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next year, said Lee Chan-woo, director general of economic policy at the Finance Ministry, during a press conference after the meeting.

##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 Picture description 유형



Q Please describe this picture.

#### SAMPLE ANSWER

I'm glad to describe this picture. This is a picture of two animals. There is a cute kitten on the left, and a puppy on the right. The kitten has some stripes on its body. It has blue eyes and gray fur. It is looking up to the puppy. The puppy has yellow fur and black eyes. It is looking down at the kitten because the puppy is bigger than the kitten. They are sitting on the grass. It might be some park on a lovely spring day.

### Picture comparison 유형



Q Please compare these two pictures.

#### SAMPLE ANSWER

I'm glad to compare these pictures, because I have used these before. The left one is a picture of smart phone we use nowadays. I use one of them also. Recently, almost everyone use the smart phones in daily life. The right one is a picture of folder phone we used in the past.

Nowadays, old people use this one more than smart phones, because of its simplicity to use.

I think both are all useful to people. We can choose which one to use for our needs.

자료 제공 : SLI 교육원(02-541-7219)

## MOVIE



## 'Inside Men' sets sales record for over-19 movies

Nov 24: The webtoon-based political thriller "Inside Men" swept the weekend box office, soaring to first place with a whopping 1.3 million tickets sold.

Accounting for 53.2 percent of the box office sales made from Friday to Sunday, "Inside Men," directed by Woo Min-ho, earned 10.5 billion won on its opening weekend.

With strong players like Lee Byung-hun, Cho Seung-woo and Baek Yoon-sik at the forefront, the film takes the audience on a two-hour intense journey into the dark corners of Korea's power structure.

Lee Byung-hun plays a political hoodlum who once worked for Jang, but is now out for revenge after being betrayed. He collaborates with a prosecutor (Cho) to plan the revenge.

The movie became the fastest film to reach one million tickets sold out of all films rated 19 and over ever released in Korea.

# REPORT



공정을 35%를 기록하고 있는 사물라 지열발전소 현장 전경(SIL 플랜트 부지)

## 우리 현장 최고 (89) 인도네시아 사물라 지열발전소 현장

# 세계 최대 지열발전소 건설로 청정 에너지 발전시장 선점 노린다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지열에너지의 약 40%가 집중돼 있는 세계 최대 지열에너지 보유국이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사물라 지역에 단일 지열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330MW(110MW급 3호기) 지열발전소가 우리 회사의 기술력으로 건설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설계부터 시공, 시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지열발전소는 지하에서 물과 증기를 끌어올린 후 고온의 증기만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사용하지 않은 물과 증기가 액화된 물은 땅속으로 다시 주입하는데, 일반적인 발전소 용량은 호기당 40~60MW 정도다.

그러나 사물라 지열발전소는 지하 2km 고 온의 지열수도 물보다 끓는점이 낮은 펜탄을 기화시키는 열원(熱源)으로 발전에 활용한다. 기화된 펜탄은 Brine OEC(Organic Energy Converter)를 거쳐 스팀터빈을 회전시킨다. 전기 생산 후 식은 증기도 그대로 액화시키지 않고 Bottoming OEC를 통해 다시 한번 발전시키는 Brine Binary 방식을 적용한다. 이러한 고효율 발전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호기당 발전 용량이 기존 지열발전소의 두 배 이상인 110MW에 달한다.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대신 지열·풍력·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생산에 주목

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력 수요가 매년 7% 증가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2025년 까지 총에너지원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우리 회사가 세계 청정 에너지 발전시장을 선점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열악한 환경에도 '도전 DNA' 발휘

우리 현장은 수마트라의 주요 도시로 꼽히는 메단에서 남동쪽으로 350km 떨어진 현지 인도 근무를 끼리는 오지 중의 오지인 사물라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프로젝트 수행 초기부터 직원들에게 수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왔다. 무엇보다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과 자재, 장비 등을 현장까지 동원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추가돼 직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낙후된 인프라, 특히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중량물 이동에 앞서 수차례 탐사를 진행하고, 시물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이동경로를 선정하는 후 노후 교량 보강공사도 완료했으나 통과 직전까지 산사태나 지진, 강우로 인한 비정상적인 대변까지 겪어야 했다. 지진으로 인하여 인공 구조물 등 일축측방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총 137에 달하는 스팀터빈 발전기(Generator)와 고장자(Stator)를 운반할 때는 현장 담당 직원이 580km를 달려야 하는 전 과정에 동행하기도 했다.

또 다른 부령은 다른 '비'다. 열대우림 기후로 인해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강우는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인 우기에 더욱 심해져 초기 공중인 토공 작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날 작업한 토공 물량이 무용지물이 돼 재작업을 해야만 했고, 갑작스러운 폭우에 씻겨 내려간 토사가 주변 지역 농가까지 피해를 입혀 보

상해야 하는 상황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특히 점토질로 이뤄진 SIL(Silangkitang)의 플랜트 부지는 비가 내리면 장비가 빠질 정도로 지반이 늘어짐 변해 작업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이에 강우로 연약화된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지반 개량 공법(Deep Cement Mixing)을 적용해 후속 공정을 병행하며 지반을 최대한 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악조건 극복을 위한 직원들의 헌력

현장의 모든 작업은 원시림 지역을 개발해 이뤄지고 있다. 직원들은 한 번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곳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악조건 속에서도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현장은 원시림을 뚫고 지열수를 다시 땅속으로 주입하기 위한 재주입정(Re-injection well) 파이프라인 및 SIL 스팀터빈의 설치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35%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많은 후속 공정과 우리 회사가 최초로 시도하는 Brine Binary System 시운전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직원들은 2018년 3월까지 세계 최대 지열발전소인 사물라 지열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완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고정대 부장, 김태훈 과장



열악한 현지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



NIL(Namora I Langit) 지열발전 부지에서 토목공사를 협의하는 직원들

## Hyundai E&C aims to get the upper hand in the green energy power generation market

Indonesia, located within the Trans-Pacific earthquake zone, has the world's largest geothermal energy reserves. Based on technological prowess, Hyundai E&C is currently building the world's single biggest geothermal power plant comprising of three 100 MW units in Sarulla. Our company is in charge of the entire process from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to commissioning.

A conventional geothermal power plant pumps water and steam from deep underground and uses only hot steam to produce electricity. One unit has a capacity of about 40 to 60 MW.

However, the Sarulla geothermal power plant utilizes pentane whose boiling point

is lower than that of high geothermal water pumped from two kilometers below ground as a heat source for evaporation. The evaporated pentane passes through passes through a brine OEC (organic energy converter) and spins a steam turbine. Under the brine binary system, the steam cooled off after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does not go through liquefaction and instead is used to generate power again via a bottoming OEC. Due to the high-efficiency power generation system, each unit of the Sarulla geothermal power plant can produce as much as 110 MW of electricity, more than two times the generation capacity of the existing geothermal power plants.

The Sarulla project is highly expected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our company to gain the upper hand in the global green energy power generation market.

**A spirit of challenge developed in poor conditions**

The construction site is located in the Sarulla province known as a very remote area, approximately 350 km to the south-east of Medan, one of main cities in Sumatera. Our staff members have had difficulties in mobilizing human resources, materials and equipment since the mobilization process is time consuming and expensive.

Moreover, our employees pay close attention to the transport of heavy haul at all times

due to the poor infrastructure, in particular the poor road condition. They are doing utmost to overcome unfavorable conditions in the construction site by running 580 km day and night to transport a generator and a stator weighing as much as 137 tons by road.

Rain is another barrier to overcome. The construction site has a tropical storm at least once a day,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earthwork in the early stage of the construction. When it rains, the Silangkitang (SIL) field becomes so soft that equipment fall into the swamp-like ground.

**All-out effort to overcome unfavorable conditions**

Our employees are striving to weather

difficulties amid adverse conditions in an aim to build the power plant in the untouched primal forest.

They are working on building a pipeline for a reinjection well to dispose of geothermal fluids into an underground reservoir and a steam turbine in the SIL field.

Currently, our company completed 35 percent of the construction process.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o carry out follow-up works and the commissioning of our first brine binary system. However, we will be fully devoted to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f the Sarulla geothermal power plant, the world's largest geothermal power plant, until March 2018.

우리 회사가 단일 지열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330MW 지열발전소를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고 있다. 사물라 지열발전소 현장은 열악한 인프라와 열대성 폭우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35%를 기록하고 있다.

### MINI Interview



사물라 지열발전소 현장  
이동규 현장소장

### “전 공정 무재해·공기 준수 이뤄내겠습니다”

지열발전 사업은 발주처에서 지열정 지역 토목공사, 열 공급 및 회수 배관, 발전소를 구분해 각각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 현장은 이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종합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물라 지열발전소는 지열발전 용량이 세계 최대인 데다 지하 2km에서 뽑아낸 습증기(Flash Steam)와 염농도가 높은 고온의 지열수로 도시바(Toshiba) 스팀터빈과 오랫 테크놀로지(Ormat Technologies) Brine Binary 터빈을 가동시키는,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수행하는 고효율 발전소입니다.

현장은 북수마트라 지역의 배타적이고 거친 성향의 현지 근로자, 지역 주민들과 충돌 없이 화합을 이끌어내고, 열악한 밀림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소임을 다해 주고 있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열발전소 건설은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지열 발전소를 인체에 비유하면 터빈은 심장, 배관은 혈관, 전계장은 신경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 발전소를 가동시킬 수 없죠. 직원들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 속에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간접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속전속결'의 자세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현재 기기 지지용 철골 설치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주공정인 오랫 터빈 및 공기 펌프관 등 주설비의 본격적인 설치작업이 남아 있지만, 전역력이 극심한 북수마트라 지역을 개발하기 까운 미래를 생각하며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공정 무재해와 공기 준수를 달성해 우리 회사가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특화된 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외국인 직원  
Mr. Ivandoly Situmorang  
PJT Control Engineer

### “Hyundai E&C’s most valuable asset is its people”

The Sarulla geothermal power plant project, as the single largest contract for a geothermal power plant in the world, posed many challenges. STG transportation is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of mine. It took 15 days to deliver 137 tons of the equipment for 580 kilometers. For this work, we repaired five old bridges and five areas with poor road conditions. Especially, we checked and repaired the road conditions every day because its elevation changed day by day due to heavy rain and earthquake. When the STG arrived at the site safely on time, I was very proud of what we did together.

Through my working experience with Hyundai E&C, I felt that the most valuable asset of Hyundai E&C is its people. Hyundai E&C people are armed with advanced technologies and great business management skills. Most of all, they do not hesitate to teach and learn each other including local staffs.

That is why one of my life goals is to become a witness of the completion of this project. I'm really keen to see the result of all our efforts and hard work. That motivates me to keep learning, working harder and giving my best to this project and Hyundai E&C.



# CULTURE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관습과 문화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16세기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나라의 문화 그리고 예술세계 속으로. 글=정일주 (월간 퍼블릭아트) 편집장

## 인도네시아 문화 그리고 예술을 말하다

16세기 세계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인도네시아는 고유의 토착 문화와 더불어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가 융화되며 형성된 국가다. 문화와 종교가 상이하고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 까닭에 문화적 교류를 상징하는 이곳은 실크로드 시기의 여러 문화가 아직까지 흔해 있다. 신비롭고 이국적인 느낌 때문일까, 인도네시아에 대한 문화와 음악, 미술 등 예술 장르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는다.

은 불교의 중요한 성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의 건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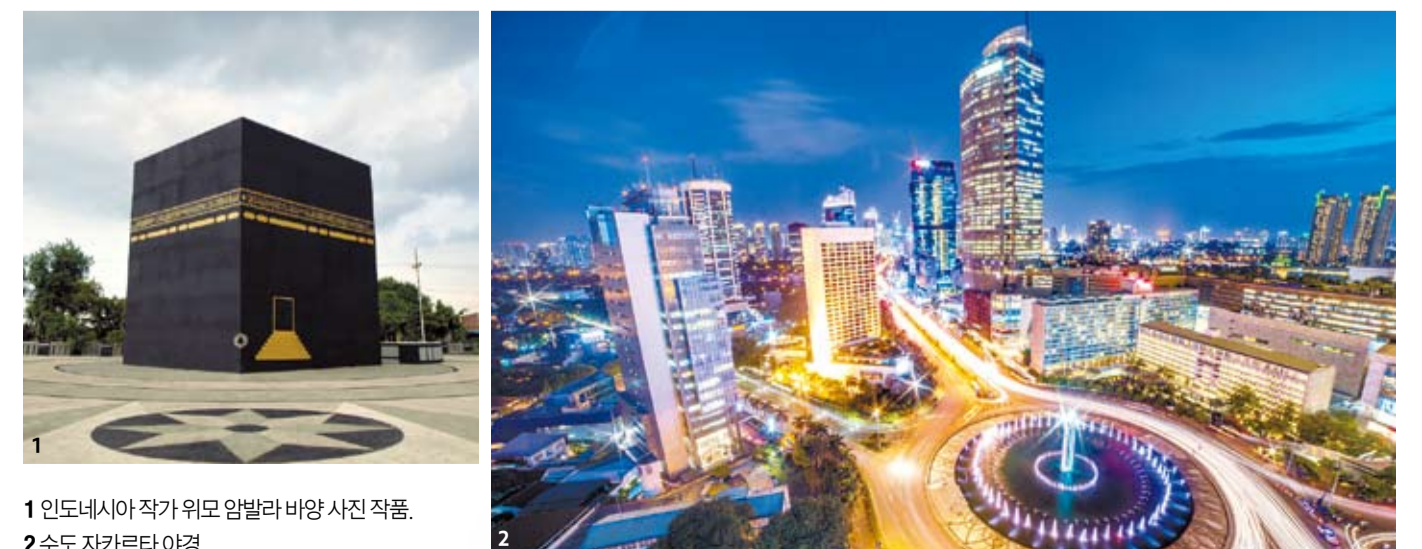
### 무역 허브,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를 이야기할 때 수도 자카르타를 빼놓을 수 없다. 보로부두르 사원이 인도네시아의 지배적 환경을 '나무'로 상징화해 지역성과 전통성을 결합했으며,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현재의 인식과 지역색이 동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다. 동남아시아 제 1의 대도시라 불리는 명성답게 자카르타는 육·해·공에 대한 모든 교통로가 잘 정비돼 있어 인도네시아 무역의 절반을 담당한다. 인도네시아대학을 비롯해 각종 문화시설과 연구 기관도 즐비해 있다. 유럽인·중국인·아랍인·인도인부터 말레이계 각 부족까지 혼재해 있는 이 도시는 어느 나라 수도보다 융복합된 명맥을 이어 보로부두르 사원(Borobudur Temple)을 건설했는데,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아시아 불교 신앙의 중심지였던 보로부두르는 수 없는 이유로 12세기에 버려진 뒤 1814년 토머스 스탬퍼드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경이 다시 발견해 널 때까지 화산재 속에도 묻혀 방치돼 있었다.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까지 더해져 건축구조자 정화하지 않은 이 사원은 종교적 의미를 초월해 대중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은 10개 층으로 이뤄진 사면 피라미드 형태로, 한층 한층 오를 때마다 부처의 삶과 가르침을 표현한 회화가 빼곡히 조각돼 있다. 위쪽 플랫폼에는 37개의 실물 크기 부처상이 놓여 있는데, 이러한 양식

날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이슈에서부터 음식과 같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재현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주목받는 조각가 아누사파티(Anusapati)는 열대우림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지배적 환경을 '나무'로 상징화해 지역성과 전통성을 결합했으며,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현재의 인식과 지역색이 동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다. 동남아시아 제 1의 대도시라 불리는 명성답게 자카르타는 육·해·공에 대한 모든 교통로가 잘 정비돼 있어 인도네시아 무역의 절반을 담당한다. 인도네시아대학을 비롯해 각종 문화시설과 연구 기관도 즐비해 있다. 유럽인·중국인·아랍인·인도인부터 말레이계 각 부족까지 혼재해 있는 이 도시는 어느 나라 수도보다 융복합된 문화적 특성을 지니며 성장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 인도네시아를 설명하는 단어 '융합'

인도네시아 예술은 그들의 역사를 품고 있다. 가령 과거 가장 중요한 물품으로 취급되던 향신료 무역에 대해 관할한 예술가 덕분에 당시 사람들의 삶과 향신료 무역 경로를 표현한 작품을 만나기도 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선보였던 (인도네시아: 다시 들려주는 실크로드)는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의 매력은 서양시조 형식 논리에 자신들만의 전통을 접목해 독특한 미술세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아직도 베일에 싸인 듯 색다르고 신비한 인도네시아의 문화들이 비단 과거의 역사에 한정되지 않고, 오늘 그리고 예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1 인도네시아 작가 위모 암발라 비앙 시진 작품.

2 수도 자카르타 야경.

# FOCUS

## 2015 임직원 사보신문 설문조사 생각과 마음이 합하면 '소통'이 된다

# HYUNDAI E&C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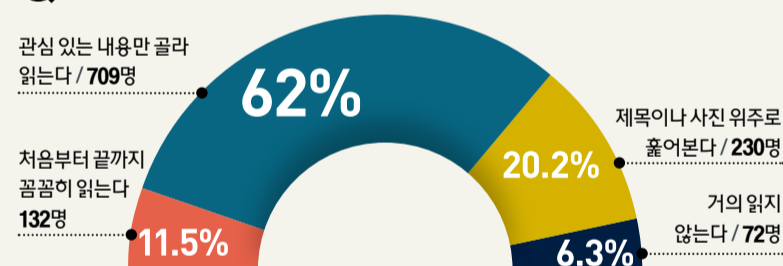


### 알찬 사보신문, 잘 읽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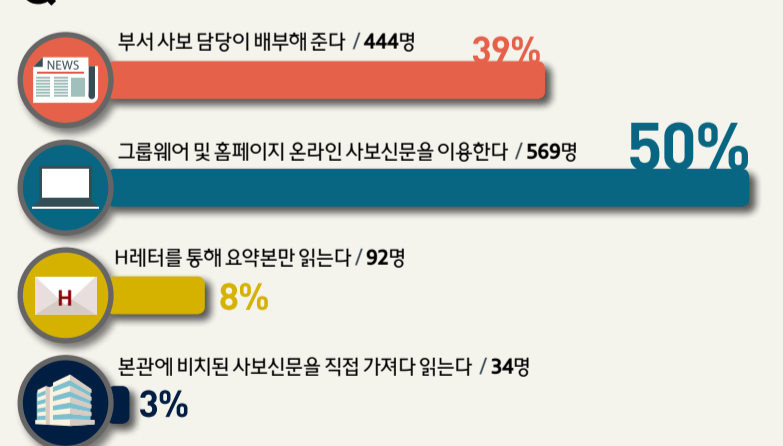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고객들이 외면하면 사장되기 마련. 올해는 지난해 설문 참여 임직원 수(664명)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참여율(1144명)로 사보신문에 대한 현대건설의 남다른 애정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은 '사보신문을 즐겨 읽으시나요?'였다. 이 질문에 총 응답자의 93.6%가 관심을 갖고 읽는다고 답해 사보신문에 대한 높은 열독률을 보여줬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정독하는 임직원이 73.5%(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다 11.5%, 관심 있는 내용만 골라 읽는다 62%)로 '제목이나 사진 위주로 훑어본다'의 20.2%보다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 사보신문에 대한 임직원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거의 읽지 않는다고 답한 임직원 72명 중 68.5%가 상사의 눈치(20.8%)나 시간이 없어서(47.7%) 등의 이유로 사보신문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답해 사보신문을 읽는 것이 회사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는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보신문을 접하는 방식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사보 이용 비율이 오프라인을 앞질렀다. 총 응답자의 58%가 '그룹웨어 홈페이지 온라인 사보신문을 이용한다' 'H레터를 통해 요약본만 읽는다'고 답했다. 이는 국내의 현장 임직원의 온라인 사보 구독이 늘어남과 동시에 올해 첫 시행한 '발행 알람 팝업, 꾸준히 발송해 온 'H레터' 등의 효과가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사보신문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직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문에 참여한 임직원의 91.4%가 '유익하다' '재미있다' '알차다'고 답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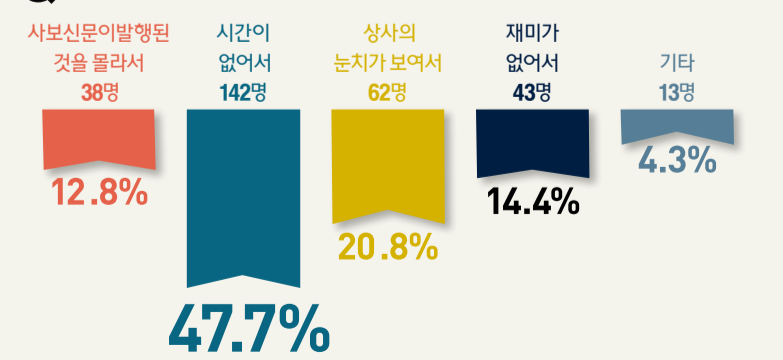
### Q 사보신문을 즐겨 읽으시나요?



### Q 사보신문을 주로 어떻게 접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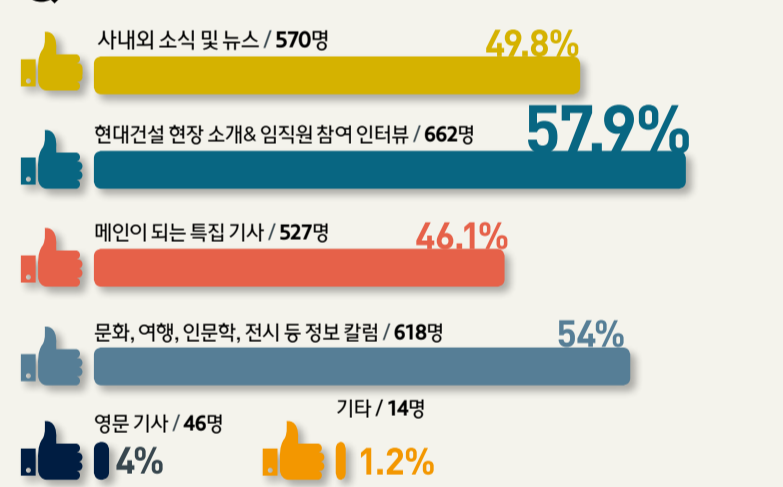
### Q 거의 읽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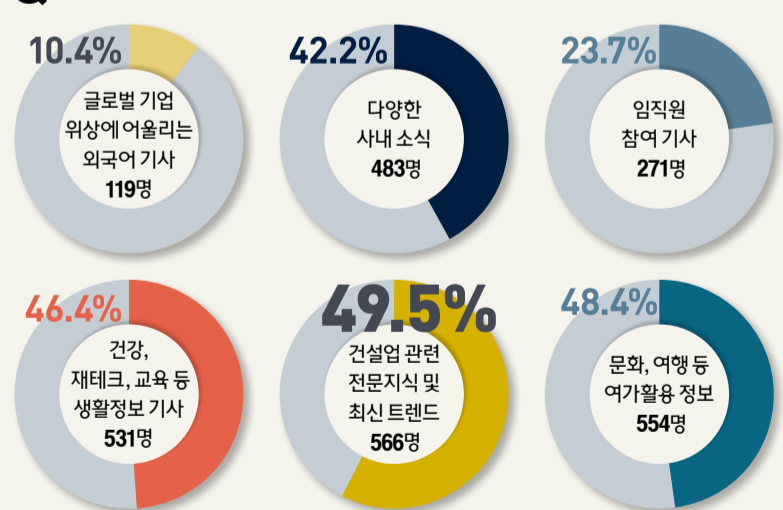
### 사우 참여 인터뷰·현장 기사 늘려주세요!

올해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사보신문 기사 중 어떤 콘텐츠에 가장 열광했을까? '사보신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는 기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현대건설 현장 소개'와 '임직원 참여 인터뷰'가 662명으로 57.9%를 차지했다. '사내의 소식 및 뉴스'(49.8%), '메인인 되는 특집 기사'(46.1%)도 상위 3위에 랭크돼 대부분의 임직원이 사내 소통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보신문 내용 중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는 '건설 전문지식 및 최신 트렌드'(49.5%), '문화·여행 등 여가활동 정보'(48.4%), '건강·재테크·교육 등 생활정보 기사'(46.4%)가 고른 호응을 얻어 전문지식과 생활정보를 겸비한 콘텐츠 확대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외국어 기사'(10.4%)에 대한 반응이 저조해 글로벌 기업인 우리 회사의 해외 현장과 외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관련 특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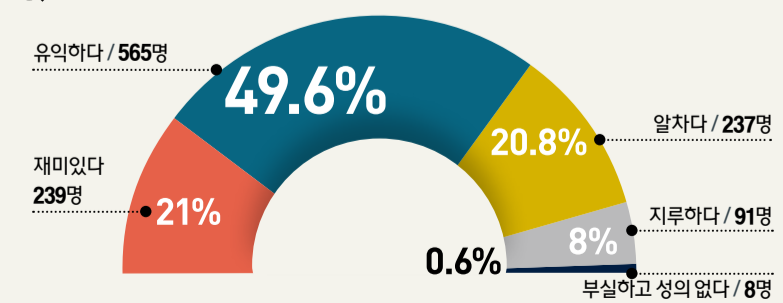
### Q 사보신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Q 사보신문 내용 중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Q 사보신문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어떻습니까?



### f 사보신문 페이스북·H레터

소통형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 주세요!

Q 사보신문 페이스북, H레터 중 선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현장 소개 / 529명: 46.2%
- 맛집 소개 / 656명: 57.3%
- 동영상 콘텐츠(인터뷰, 그룹방송, 편 비디오 등) / 222명: 19.4%
- 문화 소개 / 562명: 49.1%
- 이벤트 코너(숫자퀴즈, 토크퀴즈, 다른 그림찾기 등) / 291명: 25.4%
- 사보 취재 뒷이야기, 사보 및 그룹홍보 콘텐츠 소개 / 195명: 17%
- 기타 / 20명: 1.7%

Q 사보신문 페이스북과 H-레터를 확인하십니까?

- 알고도 있으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 461명: 40.8%
- 알고도 있으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 463명: 40.9%
- 최신 내용을 확인하며, 이벤트에도 적극 참여한다 / 107명: 9.5%
- 잘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다 / 107명: 8.8%

Q 사보신문 페이스북, H레터에 보았되었으면 하는 콘텐츠는?

- 사무소 소개 / 206명: 18.1%
- 공미를 유도하는 가시성 콘텐츠 / 208명: 18.3%
- 페이스트북 활성화를 통해 직원 가족 참여 및 외부인의 팔로워를 늘렸으면 한다.
- 사보신문 모바일 버전도 만들어 주세요.
- 동종업계 소식, 해외 선진 건설사 소개 기사도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 여행, 재테크 정보를 늘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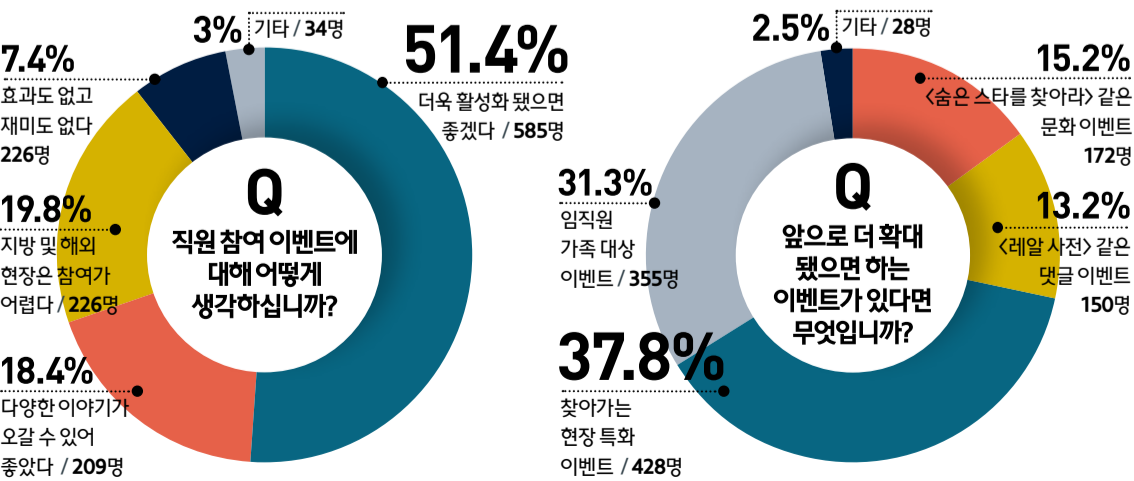
\* 사보신문 설문조사에 작성하신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과 그룹웨어 공지사항 참조해 주세요.

<기타 임직원 의견>

- 우수 현장 소개도 풍지만 실패 현장도 다뤄주세요.
- 과거 현대건설 재직 임직원의 이야기를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올해 진행된 현대건설 진출 국가별 소개가 너무 유익했습니다.

### 다양한 사내 이벤트를 기획해 주세요!

올해 홍보실은 지난해에 이어 다양한 사내 이벤트를 기획·주관하며 임직원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현대사 건설부문 계열사 전 직원이 함께 한 '숨은 스타를 찾아라 2'부터 취재자 전담 순환까지 찾아간 '이벤트'가 많다. 올해 첫 시행해 뜨거운 반응을 얻은 '숨은 스타를 찾아라 2'부터 취재자 전담 순환까지 찾아간 '이벤트'가 많다. 올해 첫 시행해 뜨거운 반응을 얻은 '숨은 스타를 찾아라 2'부터 취재자 전담 순환까지 찾아간 '이벤트'가 많다. 올해 첫 시행해 뜨거운 반응을 얻은 '숨은 스타를 찾아라 2'부터 취재자 전담 순환까지 찾아간 '이벤트'가 많다.



유익한 읽거리와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한 (사보신문)을 만들기 위해 홍보실은 올 한 해도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보다 나은 사보를 만들기 위한 임직원의 조언을 듣기 위해 지난 5일부터 7일간 (사보신문)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그룹웨어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총 1144명이 참여해 솔직한 의견을 표출했다. 글=김승희



### 해외에서도 통한 사보신문!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다!

올해 사보신문은 각 국가를 테마로 우리 회사가 해당 국가에 진출해 성공리에 진행 중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우리 현장 최고' 지면에는 현장 근무 직원의 어려움과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노력과 뜻을 상세히 기술했다. '우리 현장 최고'를 접한 해당 현장의 발주처와 현지 외국인 직원의 호응도 뜨거웠다.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의 뜨거웠던 현장 반응을 소개한다.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 발주처 ICA 설계팀 직원  
I'm proud of seeing the article in an overseas magazine about unique, stunning & splendid bridge which is being constructed in my country and it makes me feel one of the luckiest engineers because of being a part of it at the beginning of my career. -Pamir Goka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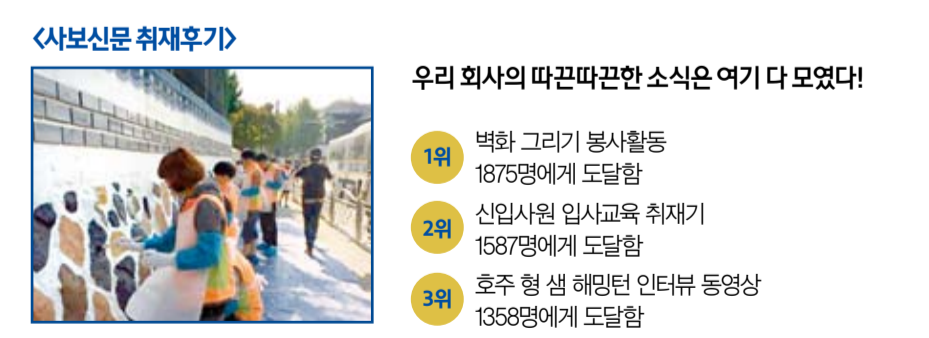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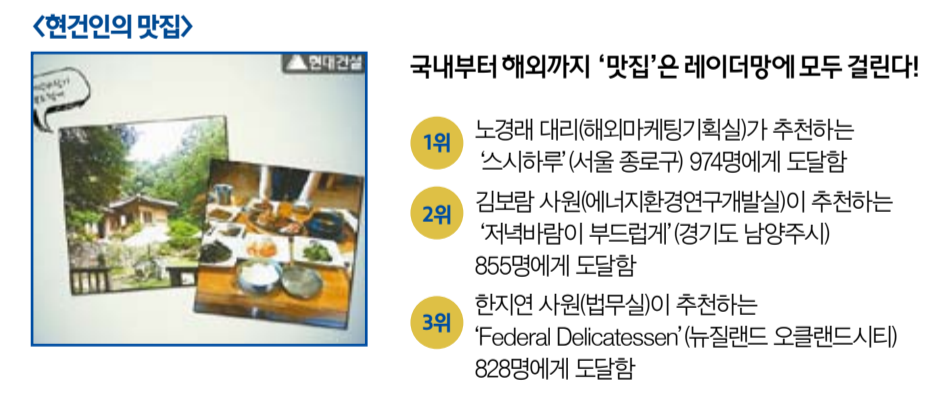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 현지 외국인 직원  
I am really proud to see 3rd Bridge Project news at Korean newspaper. This project is the most special project for me and I am still learning so many things from this project. So I really proud and thanks to my Korean managers and colleagues. In addition, news are not only related with our project it is also related with introduction of Turkey which is additional glad news for us. Thanks and best regards who contributed this news. -Nihal Bursa



### 사보신문 페이스북을 빛낸 콘텐츠

올해 '사보신문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콘텐츠는 총 105개. 직원의 맛집 소개 코너인 '현장인의 맛집'부터 '현대건설 역사&시공 현장' 'QUIZ 이벤트', 문화·공연 추천 코너인 'Culture Choice' 등 다양한 소통형 콘텐츠가 매주 업데이트됐다. 사우들과의 온라인 커뮤니티 케이션 매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보신문 페이스북'의 주축같은 콘텐츠 중 올해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포스트를 항목별로 선정해 봤다.



# HARMONY

고객 만족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직, 바로 CS센터다. <사보신문>에서는 우리 회사 건축사업본부가 지은 완공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CS센터 직원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들어봤다. 글=박현희 / 사진=송성훈



**우리 팀이 최고 ⑭ CS센터**

## 고객 불만 ZERO에 도전하다!

“우리가 현대건설의 얼굴입니다.” (왼쪽부터) 김성우 과장(기술지원), 김세진 과장(고객센터 센터장), 권정진 차장(국내건축), 조원혁 부장대우(CS센터 센터장), 심우승 차장(MOT 파트장), 정문석 사원(CS 기획).

# 최근 우리 회사 고객 만족도 수준을 알 수 있는 기본 소식이 들렸다. 우리 회사 힐스테이트가 사단법인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2015 KS-CQI 클러스터품질지수’ 조사에서 아파트 부문 1위에 오른 것. 이는 2007년 건설업계 최초로 ‘고객센터 대표전화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객의 다양한 문의(분양·계약·공사 진행·하자보수·민원 등)에 대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결실이다. 현재 우리 회사는 건축사업본부 소속의 현장 조직인 CS센터에 총 13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우리에게 맡겨라!

CS센터는 건축사업본부에서 시공한 국내 완공 건축물에 대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한다. CS(Customer Service)는 AS(After Service)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고 수습하는 것이 AS라면 이를 줄이기 위한 선제 조치가 BS(Before Service)다. CS는 AS뿐 아니라 고객에 대한 응대나 추가적인 노력으로 고객이 만족하도록 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위해 CS센터는 본사뿐 아니라 전국에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본사는 관리·CS기획·국내건축·기술지원 파트가 있고요, 지역센터는 MOT(Moments of Truth)와 동부(서울, 수도권 동쪽)·서부(서울, 수도권 서쪽)·중부(충청, 전라)·남부(영남)센터로 구분됩니다. 사외조직인 고객센터도 CS센터와 함께 협업하고 있죠.” **조원혁 부장대우**

조직이 큰 만큼 파트별 업무가 상이하고 전문적이다. 국내건축 파트는 공동주택 외 일반 건축물을 관리하고, 기술지원 파트는 전기·설비·조경을 담당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역센터는 소속 AS 기사를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MOT는 공동주택 준공 후 초기 3개월 동안 현장에 머물며 하자과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기동대’ 역할을 한다.

“저는 MOT 파트장을 맡고 있습니다. MOT 파트는 지난해 12월 건축사업본부 ‘CS 혁신안’에 의해 신설됐는데, 주요 업무는 ▶입주 초기 고객 집중 관리 ▶고객 접점 서비스 강화 ▶윈스톱 서비스 ▶해피콜 ▶당일 접수건 당일 방문, 당일 처리 등입니다. 고객이 회사나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순간은 15초 내외라고 합니다. 고객 접점 관리가 필요한 사유이자 MOT 파트의 존재 이유죠.” **심우승 차장**

“MOT가 힐스테이트의 하자보수를 담당한다면 국내건축 파트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맡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요청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다 보니 본사 수주영업팀과도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죠.” **권정진 차장**

“저희 기술지원 파트는 모든 완공 건축

물에 대한 설비·전기·조경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해요. 개인적으로는 설비 쪽을 맡고 있죠.” **김성우 과장**

“고객센터는 우리 회사 대표번호인 1577-7755로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받고 있어요. 분양 및 일반 문의부터 민원성 전화까지 그 내용도 다양하죠. 하루에 고객센터로 걸려오는 전화가 450~500통 정도인데요. 정신없이 전화를 받다 보면 어떻게 하루가 가는지 모르답니다(웃음).” **김세진 과장**

### 고객 덕분에 웃고, 우는 사람들

CS센터 직원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는 필수 역량일 것이다. 우리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각고의 정성을 쏟고 있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닌지라 한계에 부딪치기도 한다. 그러나 CS센터 직원 모두는 우리 회사의 ‘흑기사’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로 입사 21년차예요. 10년은 견적실에서 일했고, 이후 10년은 국내 건축 현장에서 근무했죠. 건설사 직원으로서 공사 준비·공사 수행·CS까지 아주 의미 있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CS야말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맡고 있는 현장만 150개가 넘는 정도로 업무가 많지만 날마다 배운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웃음).” **권정진 차장**

“권 차장님 말씀에 공감해요. 저도 CS센터에 온 지 1년이 조금 안 됐거든요. 제가 무엇보다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소통’이에요. 때론 화가 많이 난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만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모든 요구사항에 응하고 싶지만 회사 프로세스 상 헤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강경하게 거절해야 하는데, 늘 어렵죠. 가장 보람될 때는 강성 고객의 민원이 잘 해결돼 저희에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할 때예요.”

고객 덕분에 웃고, 우는 거죠.” **김성우 과장**

“고객 덕분에 웃고, 운다’라는 말이 와닿네요. 고객센터로 걸려오는 전화 중 칭찬, 좋은 말은 1%도 안 돼요. 감정 소모가 크지만, 상담사 12명이 서로 으쌰으쌰하며 일하고 있죠. 덕분에 콜센터품질지수 조사에서도 1위를 한 것 같아요(웃음).” **김세진 과장**

“CS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고객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있어요. 특히 MOT 파트는 아파트 입주 초기 3개월간 현장에 상주하며 고객과 만나요. 그래서 장기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MOT 덕분에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운이 나요. 주택마케팅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대비 고객 불만 건수가 89%가 감소했고, 고객 칭찬 건수도 132%나 증가했다고 하더군요(웃음).” **심우승 차장**

### ‘현대 정신’으로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

고객 서비스를 하는 부서이기에 휴일에도 마음 편히 쉬기가 벅겁다. 본사의 각 파트와 전국의 지역센터로 흩어져 각개전투를 벌이는 CS센터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 한자리에 모인다.

“CS센터는 회식 한 번 하는 것도 큰 행사예요. 모두가 바쁘지만 1년에 한 번쯤은 소

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게 조원혁 센터장님과 직원들의 의견이죠. 지난 10월 24일 청계산 산행을 하며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전화로만 인사드렸던 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돼 참 반갑고 좋았어요. 자주 모임은 없지만 가끔씩 오래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웃음).” **정문석 사원**

“CS센터만의 소통 활동이라면 문자메시지 전송이 있어요. 담당자가 1주일에 한 번 센터 전 직원에게 좋은 글, 재미있는 유머, 특색 있는 견본사 등을 짧게 작성해 보내는데, 반응이 좋아요. 매번 업무 지시 매일만 받다가 이런 문자메시지 한 통에 한 번 웃을 수 있는 거죠.” **심우승 차장**

“‘고객 감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직원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2015년 목표가 ‘친절, 신속’이었다면, 2016년의 지향점은 ‘품질 향상, 고객 불만 ZERO’예요. 고객 불만 건수가 줄고, 고객 칭찬 건수가 올랐다는 것은 직원들의 팀워크 덕분에이라고 생각합니다. CS센터 직원에게는 서비스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불굴의 의지, 강인한 추진력 등 ‘현대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CS센터에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웃음!)” **조원혁 부장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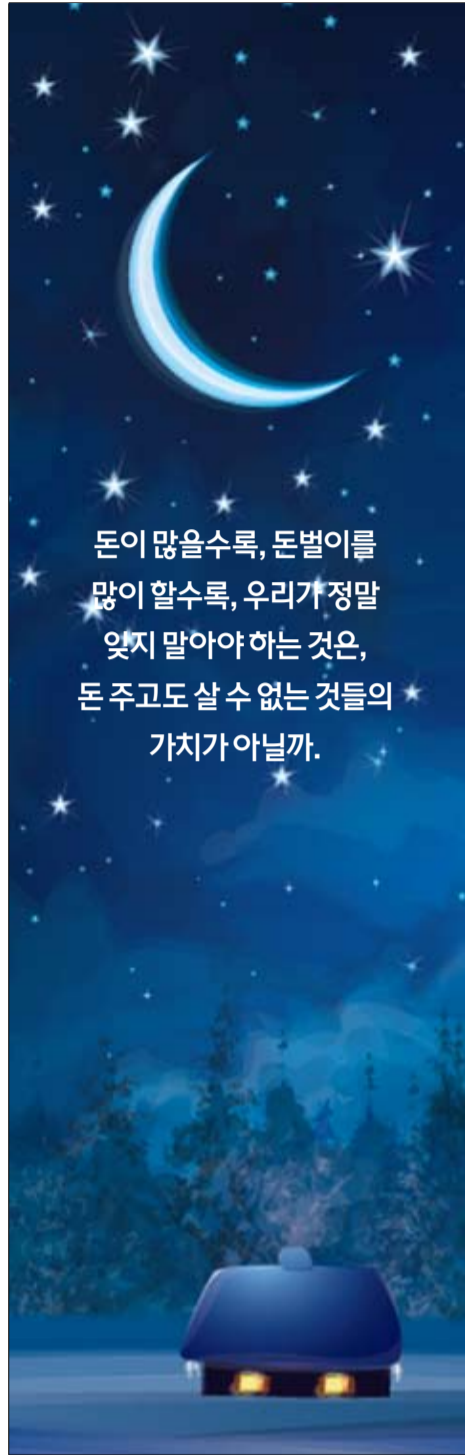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흑기사’를 자처하는 CS센터 직원들. 이들의 긍정 에너지로 ‘고객 불만 ZERO’가 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지난 10월 24일에 진행된 청계산 산행 행사.

**소통경영, 책임경영, 속도경영 - 고객과의 소통, 책임지는 직원, 신속한서비스**  
건축사업본부 CS센터 HYUNDAI

# COLUMN



돈이 많을수록, 돈벌이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가 아닐까.



## 생각의좌표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다 문득 한 친구가 생각났다. 시골 5일장을 돌아다니며 미역과 김을 파는 친구다.

원래는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는데, 문학 공부는 인생 공부며 인생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도 있다는 지론으로 수업 중 아이들을 시장터에 데리고 나갔다 학부모의 원성을 사 학교를 그만뒀다. 술에 취하는 것도 인생의 묘미를 배울 수 있다며 장터에서 아이들에게 막걸리를 사주고 '주막수업'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선생' 직을 미련 없이 버리고 평소 소신대로 시장으로 나선 친구. 그 친구가 늘 임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말이 '세상에는 가난이 살려낸 것이 참 많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칠혹 같은 어둠도 가난해야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다.

밤도 대낮처럼 밝아 하늘의 별을 볼 수 없는 작금의 도시에 살면 아닌 게 아니라 칠혹 같은 어둠의 시대는 아주 멀리 가버린 듯도 싶다. 진짜 품위는 돈이 많지 않아도 평안히 살 수 있는 삶인 것도 같다. 혹은 돈이 없는 삶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듯도 하다. 그러나 세상은 한 가지 생각으로 고착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을 주고 사

야 한다는 믿음 말이다. 아니,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돈 그 자체인 듯도 싶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이나 내 친구가 말하듯 세상에는 분명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가난해서 더욱 더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칠혹 같은 어둠은 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내는 풍경이다. 시골의 돌담, 그 낮은 돌담 사이로 주고받는 인정, 우정, 사랑 같은 것들. 오래된 동네에 가면 골목에 파, 상추, 고추, 그리고 그런 채소들 사이에 봉숭아, 채송화 같은 것을 심어놓은 깨진 함지박, 스티로폼 화분들을 볼 수 있다. 그것들은 주로 동네 노인들이 가꾸는 것일 게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터라든가 노는 땅에 뭔가 작물을 가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다. 그런데 베를린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뜻밖의 젊은이들이 대도시 베를린 한복판의 슈프레 강가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이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었다. 스무 살이 넘어서도 부모의 집에서 사는 것을 그다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인가. 가난이 절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기에 볼 수 있는 풍경인가.

전 베를린시장 보베라이트는 이런 말

을 했다. "베를린에는 자랑거리가 딱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베를린이 가난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가난하지만 문화적으로 섹시하다는 것이다." 빈터에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주말이면 친구들과 그 결실을 나누고, 공원에서 오붓하게 야의 파티도 하는. 대도시인데도 대체로 어두운 슈프레 강 위에 작은 촛불을 띄우고 노는, 우리나라보다 돈 많은 나라 독일 베를린의 젊은이들이 내게는 '가난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문화'를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새해 목표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돈을 많이 안 써도, 돈 쓸 일이 별로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 수는 없을까. 물론 돈 벌 사람은 벌어야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오직 한 가지 목표인 '돈벌이'라는 살벌한 경쟁터로 내몰려야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사회가 될 것이 틀림없다.

정치인이 '미래세대의 먹거리가 없다'는 공포스러운 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구사하는 것을 보면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심지어 죄스러운 기분까지 든다. 나는 정치인이 그런 말 대신 "우리가 정치를 잘 해서 당신들이 돈벌이의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겠으니, 너무 돈돈 하지 마시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십시오"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매체도 '한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현대건설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다.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에서 벌이는 일에는 왠지 돈벌이 대신 '경제활동'이라는 표현을 써야 옳은 듯도 싶다. 어쨌든 돈에 관련된 활동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돈이 많을수록, 돈벌이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가 아닐까.

돌아가신 박완서님이 '글을 깨친 자의 슬픔은 그가 다시는 글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 돈으로 살 수 있는 것투성이인 세상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가난해서 오히려 빛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헤아려보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선옥  
소설가



## 비즈니스 매너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는 요즘, 작은 에티켓 실수 하나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보신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관습부터 국제사회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문제까지 현대건설인이 알아야 할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를 연재한다.

# 성장잠재력 풍부한 다민족 국가 <인도네시아>편

# 현 대리는 이번 인도네시아 출장에서 계약 건만 잘 되면 승진은 문제없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현지 바이어의 저녁 초대까지 받았으니 계약 성공은 바로 코앞이다. 인도네시아 전통 남방셔츠인 '바틱(Batik)'을 차려입고 간 현 대리는 바이어의 딸을 소개받자마자 왼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바이어의 얼굴이 붉어진다. 게다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돼지고기"라고 대답하자 언짢아하는 바이어. 그러나 아직은 기대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날 바이어가 "이번 계약 건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6월 기준 2억522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다. 베트남, 미얀마와 함께 높은 성장기 기대되는 '아세안 Top 3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5%. 중심 산업은 광업과 농업, 제조업으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등을 주로 수출하고 기계류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수입한다.

한국과는 1966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13년 248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당선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가족 모두 '친환파'로 통한다. 딸은 아이돌 슈퍼주니어 팬이고 아들은 김치를 좋아하는 데다 자신은 갤럭시 노트를 사용한다고.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25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3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바족, 순다족, 바타족 등 300여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다.

민족의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대화 시 민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인구의 대부분인 86%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이슬람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수하르토 대통령 재임 당시 국민은 반드시 종교 하나를 가져야 하고, 종교가 없으면 공산주의자로 간주한 영향이 지금도 남아 있어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인도네시아인은 언어 습득 능력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비즈니스맨 상당수가 영어도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든 인도네시아어든 언어를 잘 구사할 줄 알아야 이들로 부터 인정받기가 수월하다.

한국인이 현지인과 비즈니스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들의 느긋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들은 서둘러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비즈니

스 협상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현지인의 요청에 늦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이메일보다 팩스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기업은 회신에 늦어 이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한다. 일단 요청받은 사안은 가급적 빠르게 회신해주는 게 좋다.

글=박영실 서비스파워 아카데미 대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시내 전경.

## 사우가 전하는 생생 현지 정보통!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느긋한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편인데, 화를 잘 내지 않고 타인에게 친절합니다. 이들과 대화할 때 친절하게 행동하면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은 바로 교통입니다. 도로에 신호등이 거의 없는 데다 차선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수시로 발생하고, 주요 정체 지역은 출퇴근 시간이면 움푹달라 못하죠. 한 번은 타사와 회의하기 위해 6km 거리를 차로 이동하는데 1시간30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도보보다 느린 속도였습니다. 오토바이 수도 어마어마해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합니다.

그렇다고 걸어 이동하는 게 수월치도 않습니다. 인도가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아 일단 걷기가 힘들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이상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공기 오염이 심해 도로 인근에선 숨쉬기도 힘들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하루에 약속을 두세 개 이상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약속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업무차 방문 시에는 반드시 교통체증을 감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맹정운 사원  
인도네시아 사마르타스랏16 공사 현장

### 현 대리가 머릿 깨닫지 못한

###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관습과 매너

1 인도네시아에는 중요한 일에는 왼손 사용을 금기로 여긴다. 왼손을 좌욕 등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 이에 약속을 하거나 물건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오른손 검지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모욕이라 여기기 때문에 손가락을 모두 모아 오른손 전체를 이용한다.

2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이들이 귀엽다고 무심코 머리를 쓰다듬지 않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머리를 영혼이 드나드는 곳으로 생각한다.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은 영혼의 안식처를 침범하는 행위로 본다.

3 돼지는 '코란(Koran)'에서 불결한 동물로 여겨진다. 무슬림에게는 코란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식품(할랄: Halal)과 먹을 수 없는 식품(하람: Haram)이 있다. '하람'의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다. 발리 섬을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인과 함께 식사할 때는 그들의 문화를 배려해 돼지고기를 권하지 말고 먹지도 않는 것이 중요하다.

4 인도네시아인들은 상대를 배려한다는 생각에 'No'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면전에서 거절하거나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신의 제안을 현지 파트너가 즉석에서 거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해 보겠다"는 말은 거절의 메시지가 될 확률이 높다.

# PEOPLE

임직원의 인문학적 소양 함량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핵심가치 인문학 콘서트'. 19일 열린 인문학 콘서트에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아중동 이슬람 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강단에 올랐다. 국내 최고의 이슬람 문화 전문가인 그를 <사보신문>에서 만났다. 글=이희정 / 사진=송성훈

## ☞ 만나고 싶었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이희수 교수가 말하는

# '최초'에서 '최고'가 되는 법

### 한국인 최초의 이스탄불 유학생

☞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년에 150회 이상 외부 강연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까닭입니다. 이슬람은 지구촌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단일문화권이에요. 우리는 그 지역의 에너지에 의존하고, 건설·플랜트 공사 등으로 지난 40년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슬람에 대해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종교·문화·역사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있는 그대로의 이슬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 최근 IS의 극단적인 테러 때문에 방송, 신문 등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체 인터뷰를 하고 칼럼을 쓸 때마다 인터넷에 인간 모독적인 악플이 셀 수도 없이 달려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극복해야겠지만, 순수한 인문학자로서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슬람 문화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많으니 이걸 깨우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기도 합니다.

☞ 이슬람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웃음).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세 번이나 봤는데 다 떨어지고 4수 만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남과 다른 나만의 무기를 찾던 중 대학교 2학년 때 오일쇼크가 터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충동을 두려워하고 적대심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중동 국가는 산유국이라는 책임밖에 없고 유훈, 정제 등의 모든 과정은 메이저 국가가 담당한 거잖아요. 이걸 아니라고 싶었죠.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해보니 남들이 워낙 안 하는 분야라 조금만 해도 성과가 나서 즐거웠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해 국제 유학생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터키로 떠났습니다. 그게 1983년이었어요. 막상 유학을 가 보니 당시 이스탄불 인구가 600만 명이었는데 한국 교민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첫 한국인 교민이자, 1453년에 개교한 이스탄불대학교의 첫 한국인 유학생이 됐죠. 또 거기서 박사학위를 땀으로 첫 한국인 박사가 됐어요(웃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다 보니 모두다 '최초'였습니다.

☞ 유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려면 한자를 배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키어를 기본으로 아랍어를 익혀야 했어요. 터키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들처럼 사고하고, 똑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단식도 철저히 하고, 하루 다섯 번 예배도 했어요. 그렇게 그들만의 이너서클에 들어가 압축적으로 이슬람 문화를 몸과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 유학기간 동안 위기도 있으셨을 텐데요.

저를 유독 싫어하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강의하는 <유목문화론>이 졸업 필수과목이었습니다. 60점을 넘겨야 통과하는데 늘 59점을 주셨어요.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짐 싸 들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판

이었어요. 오기가 생겨 시험을 2주 남기고 600페이지 분량의 책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토씨 하나까지 전부 외웠죠. 결국 문과대에서 유일하게 백점을 받았고, 그 책으로 터키에서 강의할 수 있었어요. 당시엔 힘들었지만, 그때의 위기가 지금의 저를 만든 셈입니다.

☞ 이슬람 문화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종교가 문득 궁금해 집니다.

누가 물어보면 다종교라고 해요(웃음). 저는 가톨릭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천주교 1세대인 성호 이익(李翼) 선생님의 작계 후손이라 사돈에 팔촌까지 다 천주교입니다. 또 중학교 3년간 부산에서 유학을 했는데, 어머니가 탈선할까 봐 걱정되셔서 주지스님께 저를 맡기셨어요. 천수경, 금강경을 매일 듣다보니 자동으로 외우게 되더군요. 그때의 추억에 가끔 절에 가서 등도 달고 예불도 드립니다(웃음). 게다가 이슬람 문화를 공부하니까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는 당연한 거고요. 저는 종교에 대해 하나의 도그마(Dogma)나 정체를 고집하고 싶지 않아요. 인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신학이랑은 철저히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 하루 4시간 이상 잠든 적 없는 노력파

☞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강의가 거의 매일 있습니다.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선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유학생할, 교수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하루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알지자라(Aljazeera)> 등을 읽으며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터키를 떠날 때 지도교수님께서 마지막 유훈(遺訓)처럼 "교수는 레몬이 되어야 한다"라는 선문답(禪問答)을 던지셨어요. 그 자리에선 무슨 뜻인지 여쭙보진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레몬은 즙으로 승부하는 열매잖아요. 남들에 의해 얼마만큼 철저히 짜지느냐에 따라 레몬의 진가가 발휘되겠죠. 제가 가진 지식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했을 때 교수로서 제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쿠쉬나메(Kush Nameh)'라는 서사시를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를 통해 중동과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 접촉을 해왔고, 중동 쪽에도 한국을 기록한 사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재 300만권 가량의 필사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의 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작업은 우리의 역사를 밝히는 것이고, 단단한 친한(親韓) 문화 인프라를 형성해 중동에 진출한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년까지 이 연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슬람 문화 전문가로서 중동 지역에서 근무 할 예정인 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30년 이상 옆에서 봐온 중동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친절하고 인간미가 철철 넘칩니다. 내일 당장 굶어죽어도 먹을 것을 나눠 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극렬한 테러리스트이다 보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죠. 편견을 걷어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따뜻한 온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많이 다닌 길은 다니기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겠죠. 하지만 사막에 선 내가 가는 길이 최초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젊은이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웃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제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희수 교수

-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박물관장
- 한국-터키친선협회 사무총장
- 한국중동학회 명예회장
- 이스탄불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동지역학 석사



# HEALTH

홍차·녹차부터 허브차·과일차·꽃잎차까지 차 종류는 수백, 수천 가지다. 한 가지 재료로 깔끔한 맛을 즐길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블렌딩 티로 마셔보는 건 어떨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티를 만들어 보자. 글=신도희 중앙일보 기자 / 사진=신동연 객원기자 / 도움말=정승호 대표(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

## Blending Tea 나만의 블렌딩 티 만들기

### 녹차+스피어민트 덕에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 아이들이 마시기 편한 차

카페인 함유돼 있는 차는 어린이가 마시기에 부담스럽다. 하지만 카페인이 없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허브차·과일차를 블렌딩하면 심신 안정은 물론 수면에도 도움을 줘 아이들이 즐기기에 좋다.

**• 레몬그라스 3 + 허니부시 2**  
허니부시는 남아프리카의 케이프지역에서 자라는 허브로 카페인이 없고 무기질 성분이 풍부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달콤한 꿀의 향이 난다.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야생에서 자라는 것을 채취하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즐길 수 있다. 과일주스와 같이 마셔도 좋는데, 차로 마실 때는 레몬그라스와 잘 어울린다. 꿀을 약간 넣어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

**• 베리타트프루츠(사과·당근·스트로베리·라즈베리 등의 과일 조각을 섞은 재료) 2 + 백차 3**  
백차는 맛과 향이 맑기 때문에 과일과 섞으면 아이들이 마시기 좋은 새콤달콤한 맛을 낼 수 있다. 여러 가지 과일 조각과 천연 베리타트향을 첨가한 베리타트프루츠는 달달한 향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재료다. 두 가지 재료를 구하기 힘들다면 녹차나 홍차에 파인애플이나 망고·파파야·오렌지 등 열대과일을 섞어 우려내도 좋다.



#### 피부 보습

건강한 피부를 가꾸려면 심신을 안정시키고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심신 안정에 탁월한 백차와 노화방지에 도움을 주는 루이보스를 활용해 블렌딩 티를 만들어 보자.

**• 루이보스 9 + 레몬그라스 1**  
루이보스는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알레르기를 억제하고 아토피피부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체내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 톤을 맑게 하고, 냉병이나 변비에도 효과적이다. 레몬그라스는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는 성분을 지니고 있어 피부에 쌓인 독소 제거에 효과적이다.

**• 백차 3 + 로즈힙 1**  
중국의 6대 차 중 하나인 백차는 향기가 맑고 맛이 산뜻하다. 무더운 여름철에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해 한약재로도 사용된다. 피부의 열을 내려 피부색을 맑게 하고 피부 재생을 돕기 때문에 '미용차'로 불리기도 한다. 비타민C가 풍부한 로즈힙과 섞으면 단맛과 감칠맛이 어우러져 달콤하면서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 다이어트

체중을 감량하는 데 효과적인 차가 많다. 우롱차·마테차 등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차에 레몬그라스·생강 등 신진대사 활성화와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재료를 섞으면 효과가 더 커진다.

**• 마테차 2 + 생강 1/2 + 시나몬 1/2**  
남미에서 즐겨 마시는 마테차는 서양의 커피, 동양의 녹차와 함께 세계 3대 차에 속한다. 이노산 촉진,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 차로 유명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해 식사조절 시 영양보충에 도움을 준다. 시나몬과 생강은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에 도움을 줘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운동 전후 물 대신 마시면 도움이 된다.

**• 우롱차 4 + 레몬그라스 1**  
우롱차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사과와 비슷한 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와 잘 어울리는 것이 레몬그라스다. 레몬그라스는 레몬의 상쾌한 향과 시원한 풀 맛이 특징이다. 장내에 쌓인 가스를 배출시키는 구풍작용, 위장 속을 정돈하는 건위작용 등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강력한 항균작용으로 감기를 예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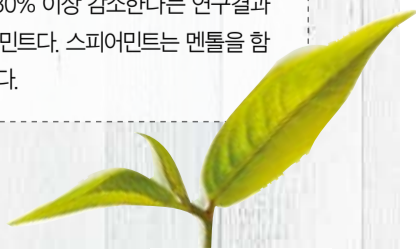
#### 감기 예방

감기를 예방하는 데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지만 차로 수분을 보충하면 더 효과적이다. 녹차·로즈힙 등은 발열·콧물·가래와 같은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히비스커스 2 + 로즈힙 1**  
히비스커스는 붉은 루비색을 띤, 신맛이 강한 허브다.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몸의 피로를 회복시켜 준다. 너무 많이 넣으면 신맛이 강해지니 주의한다. 로즈힙은 비타민 C 함유량이 레몬의 20~30배에 달한다. 감기에 걸렸을 때 염증이나 발열로 인해 소모되는 체내 비타민C를 보충해 준다. 히비스커스와 로즈힙을 함께 섞어 마시면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키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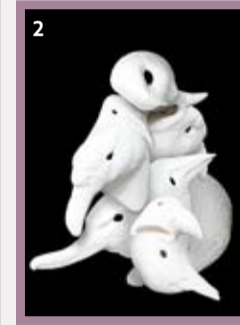
**• 녹차 2 + 스피어민트 1**  
녹차는 카테킨 등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한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테아닌이 함유돼 있어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허브의 대는 녹차의 주요 성분인 테아닌과 카테킨을 3개월간 섭취하면 감기 증상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녹차와 잘 어울리는 것이 스피어민트다. 스피어민트는 멘톨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녹차와 섞으면 맛이 순하고 상쾌하다.

블렌딩 방법 차 주전자(물 400~450mL)에 우릴 때 찻잎은 4~5g이 적당하다. 찻잎을 위에 제시한 비율에 맞추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비율로 블렌딩하면 된다.



# ART

현대자동차 아트 필름 프로젝트 '브릴리언트 30'에 선정된 바 있는 민성홍 작가가 경기도미술관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민성홍 작가는 <Overlapped Sensibility>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 민성홍 개인전

### 익숙함과 낯섦의 사이

Overlapped Sensibility: Imbued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초지동)  
2015.11.20-2015.12.13 | 031-481-7000

어디선가 봤음직한 장면들이 눈앞에 있다. 낡은 싱크대, 오래된 집 벽, 산적한 폐자재, 그리고 한가운데 하얗고 이질적인 모양의 오브제가 놓여 있다. 일상 속 개개인의 상황 변화와 경험에 집중하는 민성홍의 개인전 <Overlapped Sensibility: Imbued>의 작품이다.

민성홍은 현대미술 작가들과 미술계 오피니언 리더 30인의 삶과 예술 가치를 살펴본 현대자동차의 아트 필름 프로젝트 '브릴리언트 30'에 선정된 작가다. 2012년부터 '감성의 중첩'이라는 의미의 <Overlapped Sensibility>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자신과 주변 환경이 맺고 있는 관계에 집중해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때 나타나는 인식 과정과 이때의 순간적인 감정을 작품에 담고 싶었다고 한다. 작가는 전공인 회화뿐 아니라 사진, 조각, 설치, 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시도하며 작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Overlapped Sensibility> 시리즈 중 '채우다(Imbued)'를 테마로, 경기창작센터 입주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한 신작을 소개한다. 설치작업과 조각, 사진 기록·비디오 작업으로 채워진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붕의 활용이다. 작가는 집의 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면서 집의 각 부분과 상호 연결돼 있는 지붕에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 냈다. 지붕은 사람들의 인생이 축소된 공간을 나타낸다. 작가는 가로 4.2m, 세로 4.2m 십자형으로 교차된 형태의 지붕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400여 개의 새머리 형상을 채워 넣었다. 지붕은 작가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재료들로 만들어졌다. 거주 공간 또는 빈 공간에 형상들을 쌓아 올린 후 촬영한 사진 기록 작업도 선보인다.

1 Overlapped Sensibility: Imbued\_435×435×233(H)cm, 나무, 수집한 지붕 재료, 모터, 아크릴 거울, 형광등, 흙(Green war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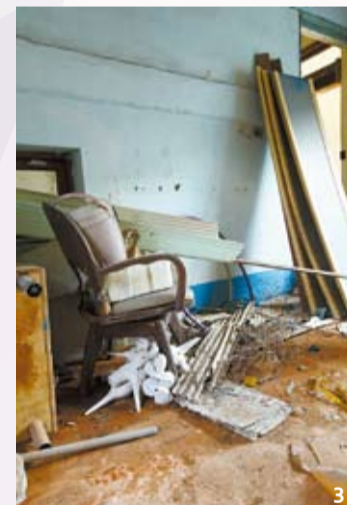
2 Overlapped Sensibility: Imbued\_30×28×28(H)cm, 슬립캐스팅(Green ware), 2015

3 Overlapped Sensibility: Imbued\_60×90cm, 슬립캐스팅 기록 작업, 피그먼트 프린트, 2015

4 Overlapped Sensibility: Imbued\_50×75cm, 슬립캐스팅 기록 작업, 피그먼트 프린트, 2015

5 Overlapped Sensibility: Imbued\_60×62×26(H)cm, 흙(Green ware), 나무상자, 2015

6 Overlapped Sensibility: Turn table\_50×50×125(H)cm, 턴테이블, 흙(Green ware), 아크릴 거울, 2015



채우다